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활동 실태 분석

강 혜 정*

Keywords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 이주여성농업인(migrant women farmers), Tobit model(토빗 모형)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farming activities of women immigrants in rural areas who are married to Korean farmers. The data used consist of 402 women immigrants whose husbands are farmers. Tobit model is appli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farm labor hours. The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the farm labor hours increase as immigrant women farmers get older. The women farmers with more farming experience in their home country spend more time in their farming activity. The result also finds that heavy burden of housework and lack of farming technique are a constraint blocking farming activities of immigrant women farmers.

차례

1. 서론
2. 농촌의 국제결혼 현황
3. 영농활동 현황 및 가능성
4. 분석모형
5. 이용한 자료
6. 분석결과
7. 요약 및 결론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hjkang@jnu.ac.kr)

1. 서 론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20～30대 젊은 연령층 중심의 이촌향도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장자상속의 전통에 의한 아들 중심의 영농승계, 여성의 도시 취업 증가, 젊은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 등으로 젊은 연령층 중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도시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촌의 미혼인구의 성비불균형이 나타나 결혼적령기에 있는 농촌의 많은 총각들이 결혼시기를 놓치고 농촌의 재생산 기능이 단절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젊은 여성층의 이촌향도 현상뿐만 아니라 농촌의 저발전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중한 농업 노동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 때문에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을, 배우자로서 농업인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즉, 농촌지역 남성의 비자발적 만혼 증가는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농촌사회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성 농가인구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추진되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주인구 확보 차원에서 농촌 노총각의 국제결혼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사회 재생산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2007년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비율이 40%가 넘었다(통계청, 2008).

최근 농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1]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농가인구구성 및 농업 인력이 변화하고 있으며, 농가 및 농촌사회 구성원으로 이주여성농업인[2]의 중요성과 역할은 부각되고 있다. 젊은 여성농업인 유입의 저조로 후계여성농업인 확보가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젊은 이주여성농업인은 농업 인력의 새로운 대안이며, 그 자녀들은 잠재적 영농승계자로 미래의 농업인력 세대이다. 따라서 농업인력 확보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농촌지역의 다문화 농업 인력을 미래의

---

1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하던 '국제결혼 가정', '혼혈가정', '코시안(Kosian)', '온누리안(Onnurian)'등과 같은 용어가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6년부터 바꿔서 부르는 용어이다.

2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을 국제결혼여성이민자로, 이들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로 지칭할 것임.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주여성농업인으로 규정한다.

농업인력 세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제결혼여성이민자 정책들이 전국 또는 도단위 중심으로 전체의 국제결혼여성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에 있어서도 농촌 정착의 기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언어교육 등의 기초생활 정착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나, 기초 사회적응을 마친 이주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농가인구구조 변화 차원에서 이들의 농업 인력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은 거의 없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농가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감안할 때, 젊은 이주여성농업인은 우리 농업·농촌의 주체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초사회 적응 및 기초 영농교육을 마친 이주여성농업인은 그 다음 단계로서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농업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전에, 이들의 현재 영농 활동 실태와 향후 농업인력화 가능성을 조사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활동 실태와 농업인력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면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관련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박재규 외(2005)는 전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국내 적응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과정 및 가족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순형 외(2006)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농촌지역의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166명과 남편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및 언어, 문화, 가족, 육아, 교육, 사회 적응 문제를 분석하고, 적응성공 사례들을 조사·발굴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건수(2006)는 총 19명의 결혼 이민자를 심층 면접조사(임실군(13명), 순창군(4명), 남원시(2명))하여 농촌지역의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적응과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양순미(2006)는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출신의 이주여성 부부들을 면접 설문조사하여 농촌결혼여성이민자들의 실태를 제시한 바 있다. 김이선 외(2008)는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이 추진된 전국의 30개 지역의 서비스 이용자(여성결혼이민자) 577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가족현황, 복지실태, 정책 및 서비스 요구 등을 파악하였고, 이 지원사업의 관련자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평가 및 향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박대식 외(2008)는 전국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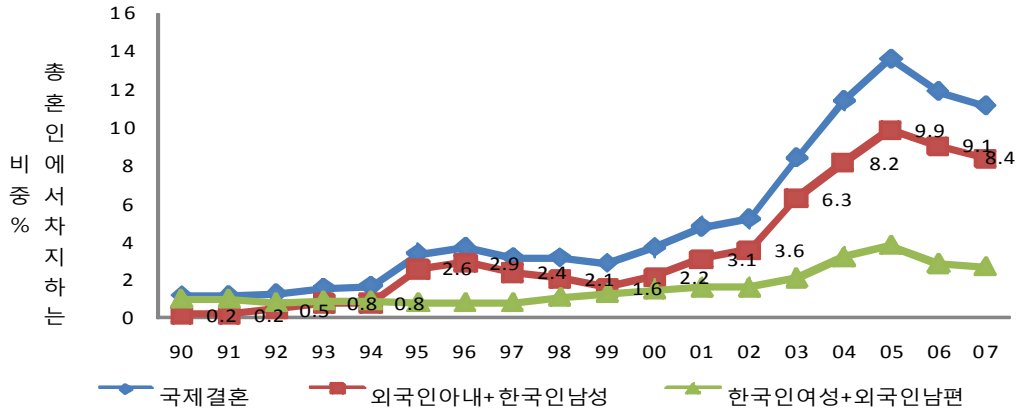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을 영농 및 기타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도출한 농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 대부분은 농촌지역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 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향후 우리 농업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영농활동 실태를 분석 및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2. 농촌의 국제결혼 현황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000년 7,304건에서 2007년 29,140건으로 지난 8년 동안 약 4배 증가하였다. 2007년 국적별 국제결혼여성이민자 수는 중국 14,526명(49.8%), 베트남 6,611명(22.7%), 캄보디아 1,804명(6.2%), 일본 1,665명(5.7%) 등이다.

그림 1. 국제결혼 변화 추이(1990~2007)



자료: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 결과」

전체 혼인에서 외국 여자와의 혼인 비중은 농촌지역(13.5%)이 도시지역(7.3%)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7년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7,930명 중 40.0%에 해당하는 3,172명이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혼인하였다. 즉, 농촌지역(읍·면) 혼인 남자 중

10.0%가 농림어업 종사자이며, 그 중 44.5%가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혼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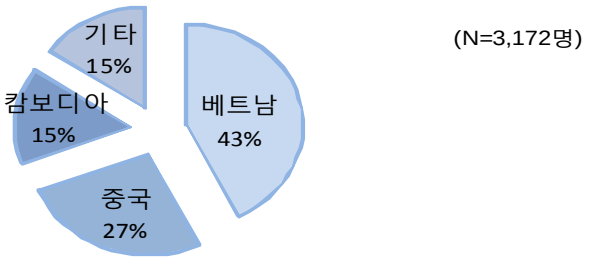
표 1. 농촌지역(읍, 면)과 도시지역(동부)의 국제결혼 실태

구 분		혼인 건수 (A)	한국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건수 (B)	구성비 (B/A)	건수 (C)	구성비 (C/A)	건수 (D)	구성비 (D/C)
2006년	계*	332,752	30,208	11.9	8,596	2.6	3,525	41
	동부	256,318	19,889	7.8	1,767	0.7	521	29.5
	읍면부	58,383	8,746	15	6,481	11.1	2,991	46.2
2007년	계*	345,592	29,140	11.1	7,930	2.3	3,172	40
	동부	270,980	19,762	7.3	1,699	0.6	515	30.3
	읍면부	59,701	8,033	13.5	5,953	10	2,651	44.5

주: * 국외 및 미상 포함.
자료: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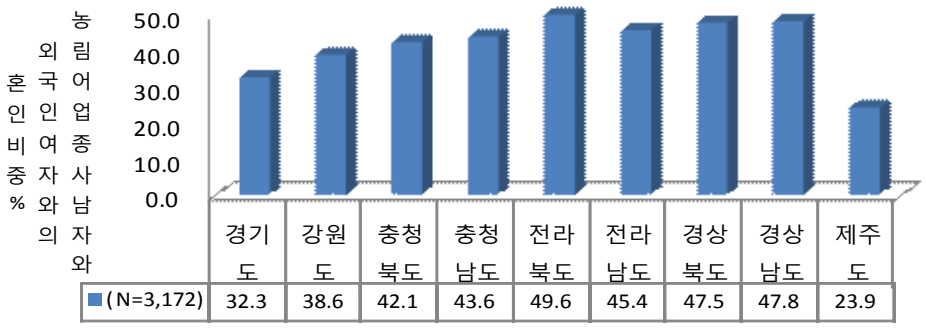
2007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 국적은 베트남(43%), 중국(27%), 캄보디아(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농림어업종사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율이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49.6%), 경상남도(47.8%), 경상북도(47.5%), 전라남도(4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 (2007년)



자료: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 결과」

그림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분포 (2007년)



자료: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 결과」

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활동 현황 및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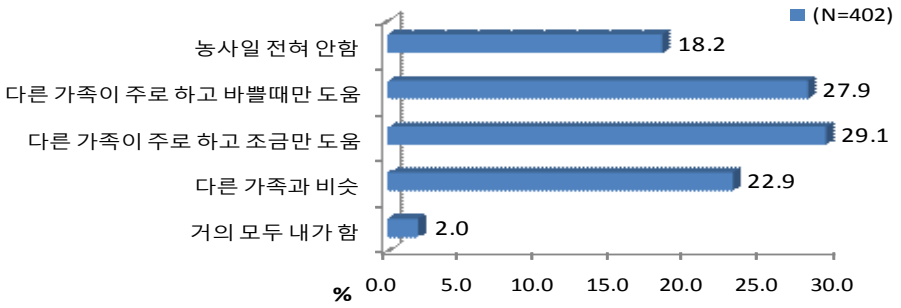
3.1. 조사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활동 현황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81.8%가 현재 집안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집안 농사일 담당 정도는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조금만 돕는다'는 29.1%, '다른 가족이 주로 하고 바쁠 때만 돕는다'는 27.9%라고 응답하여, 57%가 집안 농사일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9%가 다른 가족과 비슷하게 한다고 응답하여, 조사대상의 1/4 여성결혼이민자가 공동경영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본 조사는 설문대상을 남편이 농업인인 여성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므로, 비농업인과 혼인한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평균보다 농사일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림 5.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사일 담당 비중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농번기/농한기 구분이 있는 경우의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은 농번기에는 4시간 18분이며, 농한기에는 하루 평균 30분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 하루 평균 4시간 18분 농업노동을 하고 있었다.

표 2.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일 평균 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농번기/농한기 구분 있음						농번기/농한기 구분 없음(N=93)		
	농번기(N=309)			농한기(N=309)					
	농사	농외	가사	농사	농와	가사	농사	농외	가사
일일 평균 노동시간	4:18	1:00	4:06	0:30	1:06	4:36	4:18	0:48	3:54

3.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전 농사경험 정도, 현재 영농활동 참여 및 담당 비중, 영농지속 의향, 영농교육 참여 의향, 농촌거주 의향, 농관련사업 활동 의향, 농업인 의식 및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이 항목들을 종합해 하나의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 평가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coefficient)[4]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크론바흐

[4] 평가 항목들이 일관성(consistency) 혹은 동질성(homogeneity)을 갖는가를 나타내는 내적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척도 신뢰성 평가방법인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이용하였음.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에

알파계수가 0.8102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이런 지표들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 인력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표 3.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 평가 항목

지 표	크론바흐 알파계수
농사일 참여 유무	0.7982
농업노동시간	0.7976
이전 농사경험 유무	0.8213
향후 영농지속 의향	0.7906
영농교육 참여 의향	0.7972
농관련사업 활동 의향	0.8146
향후 농촌거주 의향	0.8125
농업노동 담당 정도	0.7899
농업의식1: 향후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0.7813
농업의식2: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	0.7793
농업의식3: 여성농업인도 직업인이다	0.7926
농업의식4: 영농활동을 잘하는 이주여성농업인이 부럽다	0.7853
농업의식5: 나의 아이들이 커서 농업에 종사했으면 좋겠다	0.8015

본 설문조사 결과, 남편이 농업인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80% 이상이 집안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어, 상당수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농가의 주요 농업 인력으로서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집안 농사일을 돕는 정도로 하고 있어, 농업노동 담당 정도의 역할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이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70% 이상이 35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므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아직 농사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초기단계가 지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영농활동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 지속 의향과 농촌거주 의향이 높고, 또한 영농교육 참여 의향도 50% 이상으로 농사일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의 영농종사 희망

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하다.

5 본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77.6%가 앞으로 농사일을 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3%가 농촌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50.5%가 영농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의사가 높아, 향후 다문화 자녀의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6]

위의 항목으로 농업인력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향후 영농활동은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러 요인에 의해 영농활동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농활동의 제약요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농업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인력화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4. 분석모형: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영농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인 농업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 개인 효용극대화에 의한 노동시간배분 모형을 설정한다.[7] 여성결혼이민자의 효용(utility)은 소비지출(C),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가사일, 휴식 등 포함, L_h), 기타 외생변수(Z_u) 등의 함수로 가정한다. 이때 이주여성농업인은 예산과 시간의 두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1) $Max \quad U(C, L_h; Z_u)$

$$C = P_q Q(L_f, X; Z_f) - P_x X + Y_m(L_m; Z_m) + Y_0$$

---

[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관 및 농업인 정체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5개 문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나의 아이들이 커서 농업에 종사했으면 좋겠다]가 3.3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그 다음이 [내가 짓는 농사 또는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가 2.76점,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 2.72점,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 영농활동을 잘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2.62점의 순으로 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Gronau(1977)는 Becker(1965)의 시간배분 이론을 가사노동, 시장노동, 여가 3부문의 시간 배분 이론으로 확장한 바 있다. 한편 Ahituv and Kimhi(2006)은 농가 경영주와 배우자의 시간배분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가사일, 휴식 포함), 농업노동시간, 농외노동시간으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시간배분 모형을 위해 Ahituv and Kimhi가 제시한 모형을 적용하였다.

$$L_f + L_m + L_h = T$$
$$L_f \geq 0$$
$$L_m \geq 0$$

$Q(.)$는 생산함수로 본인의 농업노동 L_f, 다른 가족노동을 포함한 가변생산요소 벡터 X, 고정생산요소 Z_f의 함수이다. P_q는 산출물 가격벡터, P_x는 투입물 가격벡터, Y_m는 농외소득으로 농외활동시간 L_m과 외생변수 Z_m의 함수이다. Y_0는 이전소득을 나타낸다. T는 주어진 총시간이며, L_f, L_m은 각각 농업노동시간, 농외소득시간이다.

다음과 같은 라그랑제 함수의 제1계 조건을 쿤터커 조건(Kuhn-Tucker condition)으로 풀어 최적해 집합 C, L_h, L_f, L_m, X을 구할 수 있다.

$$(2)\quad L = U(C, L_h; Z_u) + \lambda_c[P_q Q(L_f, X; Z_f) - P_x X + Y_m(L_m; Z_m) + Y_0 - C] + \lambda_t[T - L_f - L_m - L_h] + \lambda_f L_f + \lambda_m L_m$$

식(2)을 풀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노동시간, L_f*은 가사노동시간, 농외소득활동시간, 그리고 본인 및 가족 특성 등의 외생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한다.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간배분모형에 의한 가사노동시간과 농외노동시간 이외에 이주여성농업인의 연령, 학력, 한국거주기간, 농가내 농사일 참여자 수, 만6세 미만 아동 유무, 이전 농사경험 여부, 경지면적, 영농형태 더미변수 등의 외생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영농활동을 포함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사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특성은 농업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8] 본 논문에서는 연령, 한국거주기간, 만6세 미만 아동 유무 등을 이주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 특징을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젊은 층일수록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임신, 출산 등으로 농업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또한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이주여성농업인일수록 육아 등의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로 농업노동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

8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와 40대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출산연령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M-Curve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M-Curve)의 변화를 보면, 산업화와 함께 곡선이 15-19세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체적으로 상향 이동하는 특징을 보인다(장지연·전병유, 2008).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경력 등도 중요한 인적자원변수로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전 농사경험 변수는 영농기술 및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경험이 많을수록 농업노동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력 공급에 대한 교육수준의 설명적 한계는 국내외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지적되어 왔다. 즉 여성의 교육수준과 여성의 취업률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부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연구들이 많았다. 여성의 교육수준, 직업훈련 유무 등의 인적자본은 여성의 생애과정 단계에 따라서 혹은 가족 구조적 특성 등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박수미, 2002).

본 논문에서는 경지면적, 영농형태는 농가특성을 나타내는 외생변수로 포함하여, 농가의 영농특성에 따라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본 설문조사 자료에서 전혀 농사일을 하지 않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농업노동시간을 영(零)으로 응답하였다[9]. 영의 응답은 농사일을 하고 싶은 의향이 없거나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의 응답도 경제적 행위이다(Deaton, 1997). 따라서 유의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혀 농사일을 하지 않는 표본도 포함하여 농업노동시간 결정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일정한 영역에서만 관찰되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인 토빗(Tobit)모형이 적합하다.

어떤 i번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노동시간은 다음과 같은 토빗모형에 의해 표현된다.

(3) $y_i^* = x_i\beta + u_i$, $u_i|x_i \sim normal(0,\ \sigma_u^2)$

$y_i = \max(0,\ y_i^*)$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경우 $y_i = y_i^*$이고, 농사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y_i = 0$과 같이 관측된다. 이와 같은 토빗 모형에 있어서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Amemiya, 1984; Wooldridge, 2002, p. 526).

---

9 전체 응답자 중 전혀 농사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 즉 농업노동시간을 '0'으로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는 77명(19%)이다.

$$(4)\ \ \ln L = \sum_{0} \ln\left(1 - \Phi\left(\frac{x_i\beta}{\sigma_u}\right)\right) + \sum_{+}\left[-\ln\sigma_u + \ln\phi\left(\frac{y_i - x_i\beta}{\sigma_u}\right)\right]$$

단, Φ와 ϕ는 각각 표준정규분포함수와 표준정규밀도함수, $\sum_{0}$ 은 y_i가 0인 항만의 합, $\sum_{+}$ 은 y_i가 0보다 큰 항만의 합이다.

5. 이용한 자료

본 논문은 2008년 11월 20일 ~ 12월 17일 전국의 농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여성이민자 중 남편이 농업인인 이주여성 402명을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10]. 통계청의 혼인통계에 농촌(읍, 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 인적특성이 조사되어 있으나, 남편이 농업인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미흡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농업인과 혼인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설문대상의 특성상 전국 국제결혼여성이민자 통계와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향후 종사 가능성이 높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 및 가구특성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07년 행정안전부의 국내 외국인 거주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 8개 도(7개 특별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 지역 내 도·농 복합시(시 지역 내 읍·면·동이 존재하는 지역)와 군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8개 도내 시·군 지역을 비례할당법을 적용하여 1차 선정한 후 해당 시·군 지역 내 읍·면·동 중 2개 마을씩 무작위 선정하여 각 표본조사지점 마을별로 8명씩(한국국적 미취득 국제결혼여성이민자 6명, 한국국적 취득 국제결혼여성이민자 2명) 조사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된 8개 도내 설문대상자 할당은 <표 1>와 같다.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는 베트남 45%, 중국 25%, 필리핀 12%, 일본 8%, 캄보디아 6%, 기타 4%로 나타났다. 기타 국적에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러시아, 미얀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10 이 자료는 강혜정(2009)의 설문조사 자료이다.

표 4. 지역별 표본 수 분포

구분	경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설문대상자 수	64	32	32	48	48	56	48	74	402

<표 5>는 분석 자료에 나타난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표 5. 기초 통계량

변수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농업노동시간	시간/일	4.66	4.01	0	25
가사노동시간	시간/일	7.61	4.39	0	28
농외노동시간	시간/일	1.74	4.68	0	30
이전 농사경험 여부	1: 있음 0: 없음	0.34	0.47	0	1
국적취득 여부	1: 있음 0: 없음	0.27	0.45	0	1
연령	세	30.6	9.53	19	69
교육수준	1:무학 2:초졸 이하 3:중졸 이하 4:고졸 이하 5:대졸 이하	3.6	0.91	1	5
거주기간	년	4.9	4.07	0.5	23
만6세 미만 아동 유무	1: 있음 0: 없음	0.67	0.47	0	1
경지면적	ha	0.47	0.64	1	4
쌀농가	1: 예 0: 아니오	0.62	0.49	0	5.9
과수농가	1: 예 0: 아니오	0.06	0.24	0	1
채소농가	1: 예 0: 아니오	0.14	0.35	0	1
일반밭작물농가	1: 예 0: 아니오	0.08	0.28	0	1
축산농가	1: 예 0: 아니오	0.06	0.24	0	1
기타농가	1: 예 0: 아니오	0.03	0.17	0	1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0.6세이며, 교육수준은 고졸, 거주기간은 4.9년이다.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국내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2세이며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은 2.8%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농업노동시간은 4.66시간, 가사노동시간은 7.61시간, 농외노동시간은 1.74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전 농사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34%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67%로,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육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지면적은 0.47ha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영농규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62%가 쌀농업 중심이었다.

6. 분석결과

토빗 모형(Tobit model)을 이용하여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I은 가장 기본적인 모형으로 한국국적취득 여부, 연령, 학력, 거주기간 등 인적특징의 영향만을 분석하고, 모형II는 두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 이주여성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노동시간이 감소하다가, 어느 임계 연령(모형I: 30세, 모형II: 39세)이 지나면 농업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30대 초반에는 임신 및 출산과 육아 등의 집안일로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힘들어, 단순히 바쁠 때 조금 도와주는 정도만 하다가 자녀 취학 이후 본격적으로 농사일에 관여하여 담당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70%가 35세 미만으로 매우 젊은 여성들이므로, 향후 몇 년 후 이들의 영농활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일수록 농업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여부는 한국거주기간과 관련이 있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한국거주기간이 증가하면 농업노동시간이 증가하다가, 어느 임계기간(모형I: 14년, 모형II: 12년)이 지나면 농업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 교육, 집안일 등의 증가로 농업노동시간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이

지만, 다른 원인은 농촌사회에 점차 적응이 되어 농외활동이 증가한 이유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농업노동시간이 증가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캄보디아,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연령이 낮고 한국거주기간이 짧아, 임신, 출산 등으로 농사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배경측면에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농촌 인력 활용 가능성은 연령, 한국거주기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초기에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농사일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녀 취학 이후 농사일 참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은 여성들의 농외소득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전 농사경험이 있으면 농업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 거주하기 전 본국에서의 농사경험, 영농기술 등이 현재 영농활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도 현재 전혀 농사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 중 '농사일을 할 줄 몰라서(12.3%)'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영농활동 참여 어려움으로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이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국에서의 농사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이주여성농업인은 영농활동 참여에 한계가 있다. 농업기계와 영농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노동집약적 영농방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여성결혼이민자는 영농기술교육 참여 기회가 적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은 한국어 교육, 생활적응 교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이 있더라도 임신, 출산, 육아 등과 불편한 교통편,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본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 문제는 여성농업인의 육체적 농업노동 부담을 증대시키고, 농업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농업인이 영농기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회 확대와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출신국적별 농사경험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출신의 90% 이상이 농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캄보디아, 베트남 등 농업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사 경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는 이들의 영농활동 참여도가 낮으나, 향후 이들의 농업인력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11]

---

[11]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66%가 한국에 오기 전에 본국에서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절반이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영농경험이 없는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농업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농외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농업노동시간도 감소하였다. 또한 만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농업노동시간은 감소하여, 영유아 육아는 영농활동의 제약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사노동 증가는 영농활동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도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사일을 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집안일과 농사일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46.2%가 응답하였다.

경작면적이 많을수록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이 증가하다가, 어느 임계면적(5ha) 이상이면 농업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부부협업 중심의 농업구조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의 노동투입량은 상대적으로 많으나, 외부 고용 인력을 고용하는 상업농구조에서는 여성의 노동투입량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논벼농가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영농형태인 채소농가, 과수농가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투입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논벼는 남성이, 채소 및 과수농사는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는 전통적인 농업노동 영역구분이 나타나고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94%가 전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비율이 높으며, 다음이 중국, 필리핀 출신 등의 순이다.

표 6. 토빗 모형 분석결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노동시간 결정 요인 분석

변 수	모형I	모형II
	추정치	추정치
한국국적 취득 여부	1.545 (2.52)*	1.590 (2.73)**
연령	-0.320 (-1.98)*	-0.330 (-2.21)*
(연령)2	0.005 (2.36)*	0.005 (2.45)*
교육수준	0.394 (1.53)	0.375 (1.56)
거주기간	0.351 (1.56)	0.563 (2.57)*
(거주기간)2	-0.021 (-1.00)	-0.025 (-2.10)*
가사노동시간		-0.161 (-3.08)**
농외노동시간		-0.194 (-3.85)***
만6세 미만 아동 유무		-1.089 (-2.00)*
이전 농사경험 여부		1.163 (2.51)*
경지면적		3.134 (4.07)***
(경지면적)2		-0.518 (-2.86)**
과수농가		0.682 (0.74)
채소농가		1.458 (2.33)*
일반밭작물농가		-0.889 (-1.13)
축산농가		0.471 (0.52)
기타농가		2.153 (1.70)
상수항	5.869 (2.08)*	7.271 (2.62)**
LR χ^2 Log likelihood	37.82*** -1029.45	99.94*** -998.38

주: ( )는 t값

추정을 위해 제거된 영농형태 더미변수는 '논벼농가'임.

*p<0.05; **p<0.01; ***p<0.001

7.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국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남편이 농업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80% 이상이 집안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어, 상당수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농가의 주요 농업 인력으로서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집안 농사일을 돕는 정도로 하고 있어, 영농활동이 아직까지는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이 젊고 학력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향후 농업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농 지속 의향과 농촌거주 의향이 높고, 또한 영농교육 참여 의향도 높아 농사일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농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의지를 발전시키고 농업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 기술 등을 고루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농업·농촌 인적 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농업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노동시간은 연령, 한국거주기간, 만6세 아동 유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결혼초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농사일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녀 취학 이후 농업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 영농활동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단계별 농업인력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30~40대에 해당되는 이주여성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계획과 체계가 필요하다.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우선 영농 희망 및 정착 의지가 강한 이주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영농기술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는 본국 농사경험이 있었으며, 반대로 영농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여성들은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을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이주여성농업인의 90% 이상이 농사기술을 가족에게서 습득하였다고 응답하여, 체계적인 농업기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주여성농업인 대상 영농교육을 위해 생애주기 및 정착단계를 고려한 단계적인 영농기술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결혼초기에는 한국어 교육과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농업 이해 및 농업인 자긍심 고취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남편의 직업을 이해하고 기초영농기술을 익혀, 집안 농사일을 도울 수 있

을 정도의 기초영농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로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기초사회적응이 된 영농 희망과 정착 의지가 강한 이주여성농업인 대상 전문 영농기술교육 실시 및 정책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결과 육아와 가사노동도 영농활동 활성의 큰 제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사와 농사일을 병행하는 어려움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고단함으로 이어지며, 이는 영농을 그만두거나 농촌을 떠나고 싶은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5%가 농사일이 힘들어서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가사노동 경감을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교육체계 마련, 도우미제도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들이 가사일과 함께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이주여성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면서 후계여성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조성은 국내 젊은 여성들을 농업·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편과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남편 및 가족의 가사노동 분담, 영농기술 및 농기계 조작 지도, 영농교육 참여 협조, 생활방식 및 문화적 차이 이해 등은 원활한 농촌생활 정착뿐만 아니라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 문헌

강혜정. 2009.「농촌 다문화후계세대 육성방안」. 농림수산식품부.

김이선, 정해숙, 김영주. 2008.「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박대식, 최경은. 2008.「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수미. 2002. “한국여성의 ’인적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한국인구학」25(1): 113-143.

박재규 외. 2005.「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북발전연구원.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농촌사회」16(2): 151-179.

이순형 외. 2006.「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방안」. 농림부.

장지연·전병유, 2008.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여성경제연구」5(2): 81-98.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한국문화인류학」39(1): 195~243.

Ahituv. A. and A. Kimhi. 2006. “Simultaneous estimation of work choices and the level of farm activity using panel data.”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33(1): 49-71.

Amemiya, T. 1984. “Tobit Models: A Survey,” *Journal of Econometrics* 24: 3-61.

Becker, Gary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299):493-517.

Gronau, Reuben. 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1099-1123.

Wooldridge, J. M. 2002.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원고 접수일: 2009년 11월 2일
원고 심사일: 2009년 11월 10일
심사 완료일: 2009년 12월 13일